『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3호 2012년 9월 383～417면
Seoul Law Journal Vol. 53 No. 3 September 2012. pp. 383～417

〈논문〉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형사변론술*

河 在 洪**

요 약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법정에서 흥미진진한 구두변론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법원 중심의 사법개혁이 가진 한계인데, 법정에서 실제로 변론을 수행해야 할 검사와 변호사에 구두변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인식 정도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구두변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열망 부족은 물론 구두변론의 기술들을 익히고 습득하려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구두변론의 기술은 일찍이 서양의 고전시대에 처음 등장하여 소크라테스로 대변되는 ‘진정한 철학’과 경쟁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구두변론의 기술은 모방과 연습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구두변론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방도는 없을까? 이 글에서는 플라톤의 대화편 작품 중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서 소피스트들이 개발하였던 구두변론의 기술들을 자세히 소개하려고 한다. 위 글은 고전 중의 고전으로서 법조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삶으로서 철학을 실천하였던 역사 속의 한 사람의 이상적 인물을 그린 철학 영역에 속한 문헌’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뿐 정작 소피스트들의 전문기술인 법정변론의 기술, 즉 구두변론의 기술들이 총동원된 ‘패러디’ 작품이라는 사실은 국내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의 고전독해라는 것이 얼마나 교조화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글의 주된 관심과 목적은 널리 알려진 고전작품에서 구두변론의 성격과 기술들을 쉽게 보고 익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려는데 있다.

주제어: 구두변론, 소피스트, 수사학, 소크라테스 재판, 플라톤, 크세노폰

* 본 연구는 2011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변호사.

Ⅰ. 서 론

공판중심주의가 사법개혁의 하나로서 강조된 이래로 구두변론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형사법정에서 이를 경험하기는 아직도 쉽지 않다. 그 이유로 무엇보다 구두변론의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는데 누구든 쉽게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정작 구두변론의 기술[1]에 대한 연구나 교육마저 부실하다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3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두변론을 의무화하였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에 불구하고 구두변론이 좀처럼 확대되지 않는 것을 보면, 구두변론의 어려움은 그저 화술화법을 익히거나 서면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정도로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님을 알 수 있다.[2] 예로부터 구두변론의 기술은 모방과 연습으로 익히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기술의 개발과 교육을 위해서는 구두변론술을 익혔다고 자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실연(實演)해 보일 '마스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구두변론에 있어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가진 경우라면 몰라도 우리의 경우처럼 그런 경험이 일천한 경우에는 전통의 저력을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

1)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두변론의 기술이란, 쉽게 말하면 '수사학(rhetoric)'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수사학은 가히 중흥기를 맞이하였다 할 정도로 다양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정변론기술로서의 수사학은, 정작 이 기술을 익히고 연마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리 법조인들에게는 아직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2)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익혀야 하는 기술들은, 예를 들어 법정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처럼 말하기, 생각하기, 글쓰기 등의 제목으로 미국 등지에서 간행되는 서적들을 살펴보면 누구든 구두변론술이나 서면작성법 등이 고전수사학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실제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정형화된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전수사학의 기원이나 역사, 원칙과 같은 것을 굳이 밝히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고, 고전수사학의 원칙을 재강조하면서 법문서작성법과 연결 지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희귀한 사례가 되었다[참고로 법문서 작성에 수사학의 적용을 소개한 최근의 연구로 Kristen Konrad Robbins-Tiscione, *Rhetoric for Legal Writers, The theory and Practice of analysis and persuasion (American Casebook Series)*, West, 2009이 있다]. 분명한 것은 수사학의 전통을 잇는다는 문구가 표면적으로 있거나 없거나 오늘날에도 영미에서의 법률가에 대한 글쓰기 말하기 교육은 여전히 고전수사학의 전범(canon)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서면을 요약해서 읽는 것이 구두변론의 전부가 아니라면 고전수사학에 대한 이해 없는 법정(구두)변론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수사학의 문화컨텐츠를 연구개발해서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서 구두변론이 가능할 것이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우리의 이 현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현실세계에서 이러한 마스터를 찾기 어렵다 하더라도 과거에 마스터라 할 만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서 그의 변론문을 교육과 훈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론’[3](이하 **‘변론’**이라 한다.)을 통해서 구두변론의 기술을 살펴보려고 한다.[4] **‘변론’**은 철학을 위해 순교한 위대한 철학자의 모습을 그린,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철학이라는 학문분야에 속하는 고전작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변론’**은 기본적으로 형사변론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변론’**에 법정변론의 기술, 즉 수사학적 기술[5]들이 적용되어 있다는

---

3) 플라톤의 대화편 중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종전까지 국내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변명’이라는 우리말 제목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영어 ‘apology’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영어 ‘apology’의 원어인 그리스어 ‘apologia’의 의미는 ‘defence’이므로[Thomas C. Brickhouse and Nicholas D. Smith, *Plato and the Trial of socrates (Routledge Philosophy GuideBook)*, Routledge, 2004, 185쪽] 우리말로도 ‘변론’이 더 적당한 것이다. 또한 그 내용도 소크라테스가 기소인을 상대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변명’이라는 제목은 이 대화편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 작품을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출간 또는 인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예를 들어 플라톤(박종현 역), **플라톤의 네 대화편 -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서광사, 2003과 서상복 역,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철학사**, 을유문화사, 2009, 143쪽도 ‘변론’으로 번역하였다].

4) 왜 하필 구두변론의 기술을 저 먼 시대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찾으려 하는가? 간단히 이유를 말하자면, 서구에서 구두변론의 기원이자 원형은 고전 수사학에 있는데, 그 업적이라 할 수 있는 많은 고전 작품들이 있음에도 우리말로 번역되어 널리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필자가 알기로는 최근 최자영 번역으로 아테네 10인의 연설가(The Orators) 중 소크라테스 후대의 이사이오스의 작품들이 번역되어 있고(**변론**, 안티쿠스, 2011), 그 외 키케로의 수사학 작품 하나가 양태종(**생각의 수사학**, 유로, 2007), 안재원(**수사학-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길, 2006) 각자의 번역으로 나와 있을 뿐이다], 다만 다행인 것은 **‘변론’**은 플라톤의 작품이지만, 플라톤은 이 작품에서 소피스트들의 수사학 기술을 완벽할 정도로 구사하였고, 또 이 **‘변론’**이 우리에게는 현재로서는 일반에 오래 전부터 또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기 때문이다. 아테네 10인의 연설가들과 키케로가 남긴 법정변론문들은 지금까지도 방대한 분량이 현존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구두변론의 모습을 현대에 생생하게 전해주므로 매우 가치가 있다. 아무리 구두변론의 활성화를 강조한다 한들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델변론문이 되는 작품들을 자기 나라 말로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무가들에게도 참고가 되도록 속히 번역되어 읽히기를 바라는 것이다.

5) 수사학(rhetoric)은 어원(語源)에 있어 ‘공적 말하기’를 의미하며, 이것은 법정변론, 의회연설, 기념식 연설에서의 작문을 포함한 연설에 관한 기술을 의미하지만, 현대에는 ‘문장기교’를 의미하는 말 정도로 이해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정작 수사학 본연의 장르인 ‘법정변론에서의 기술’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더 어색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수사학의 기술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공간이 법정이고 그곳에서의 연설기술을 곧 수사학적 기술이라 불러온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어원에 충실하게 ‘수사학’과 ‘법정변론기술’이라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몇몇 부분에서 차용한 것이 아니라 **'변론'**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변론문이라 할 정도로 당대 유명한 소피스트들의 법정변론 기술들이 총동원되어 있다시피 한 작품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변론'**은 참으로 특이하면서 아이러니한 작품일 뿐 아니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켜 온 작품이기도 하다. **'변론'**에는 아직도 많은 미해결의 문제들, 그리고 영원히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듯한 문제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변론'**의 역사적 정확성에 관련된 것으로, 결국에는 위와 같은 모순된 듯한 모습에서 생겨나는 의문을 둘러싼 것이다.

'변론'에 수사학적 기술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고전연구가들 사이에서조차 정확히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었는지는 자세하게 소개되거나 검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소크라테스 및 플라톤 시대의 법정변론기술들로 개발되고 보급된 것들은 무엇인지, **'변론'** 중 어떤 부분이 어떤 기술을 차용한 것인지 세밀하게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변론'**의 첫 번째 연설을 중심으로[6] 지금껏 피상적으로만 알려져 있는, **'변론'**에 사용된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적 기술들을 찾아내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7] 이를 통해서 **'변론'**을

는 두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한다. 가급적이면 법정변론기술이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사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이와 관련된 고전연구분야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6) **'변론'**은 세 편의 연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연설은 무죄변론, 두 번째 연설은 배심원들의 표결로 유죄가 인정된 후에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피고인측의 형량 제안연설이고, 세 번째 연설은 고별연설이다. 당시 아테네 사법제도에서 소송당사자는 대개 한 번씩의 변론을 하는 것으로 변론을 마치고 두 차례 이상 변론을 실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물론 이를 근거로 **'변론'**을 문학적 허구라 할 것은 아니지만, 변론기술이 망라되어 있는 것은 주로 첫 번째 연설이므로 이 글에서도 첫 번째 연설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7) 플라톤이 왜 그토록 철학의 적으로 비난해 마지 않았던 소피스트들의 법정변론기술을 **'변론'**에 사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들이 있다. 이러한 설명들은 대체로 철학의 수사학에 대한 우위, 소크라테스의 소피스트와 그 기술들에 대한 우위라는 기본적인 도그마를 지키고, 또 **'변론'**에 법정변론기술(수사학적 기술)들이 사용된 사실 사이의 모순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양립 내지 해소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태도를 경계한다. 필자는 '수사학에 대한 철학의 우위의 고수'와 같은 사명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피스트들로부터 차용한 변론기술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향후의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로서는 **'변론'**이 법정변론문인 이상 구두변론을 위해 법정변론문을 작성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그 세밀한 내용을 밝히면 밝힐수록 우리나라의 구두변론 정착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변론'**을 형사사건에서의 구두변

대가가 후세에 남겨준 형사변론문의 모델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당면한 현실의 과제, 즉 모방과 연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변론문들 중의 하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변론’**의 역사성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고, 이어 **‘변론’**의 첫 연설문에서 내용순서에 따라 법정변론기술을 세부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II. **‘변론’**의 역사적 정확성 문제

역사 속의 소크라테스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의 모습과 언행을 그린 고전작품을 기초적인 사료로 삼아 이를 근거로 재구성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기초적인 사료로 전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플라톤의 대화편들이 있고, 또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인 크세노폰이 남긴 작품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들이 전하고 있지만, 사실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가진 하나의 매력이라 해도 좋을 것이,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모습을 확정짓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점이다.[8)]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문학적 허구인가 아니면 실재 소크라테스와 작품 속 대화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기록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비단 **‘변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변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첫째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변론에 대해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남긴 작품들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처형 후 그의 재판과 변론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할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저술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크세노폰과 플라톤이 각자 쓴, 제목이 같은 ‘소크라테스의 변론(Apology of Socrates)’이라는 작품들이다. 그런데 두 작품의

론을 위한 모범샘플로 읽고자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8) 소크라테스에 대한 연구는 고전학자들 사이에서는 주로 ‘소크라테스 문제’라 불리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지금껏 많은 학자들이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재구성하기 위해 시도해왔고, 그중에 권위 있는 몇몇 학자들은 ‘소크라테스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해 오고 있는데, 비록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해가 교조화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가들이 제시한 견해는 스스로 교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대가의 견해는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경계 내지 한계를 제시한 것으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은연중 그에 반대되는 견해는 싹트지 못하게 되거나 묵살하게 만드는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내용에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두 사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나 두 작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나 고전학계는 전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9][10] 둘째 **'변론'**의 내용적인 면을 보면, 주지하듯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수사학(즉 법정변론술)에 대한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당대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에 대해 가차 없이 공격을 가한 것으로 유명한데, **'변론'** 자체는 이들 소피스트들이 개발한 변론기술들이 총

---

9) 러셀은 서양철학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역사가들이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다. … 그는 확실히 재판을 받았고 그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으며, 기원전 399년 대략 70세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 그러나 이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모든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만다. 소크라테스의 두 제자, 크세노폰과 플라톤은 그에 대한 방대한 저술을 남겼으나, 두 사람은 소크라테스에 대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한다. 버넷은 그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때조차 크세노폰이 플라톤을 베꼈다고 해석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이는 크세노폰을 믿지만 다른 이는 플라톤을 믿었고, 또 어떤 이는 둘 다 믿지 않았다." B. 러셀(서상복 역), **서양철학사**, 을유문화사, 2009, 138쪽.

10) '소크라테스 문제'와 이에 대한 고전학계의 논의경과를 쉽게 정리한 것으로 루이-앙드레 도리온(김유석 역), **소크라테스**, 이학사, 2009이 있다. 이에 의하면,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학설을 재구성하기 위해 철학자들이 해결하려 하는 역사적 방법론적 문제를 '소크라테스 문제'라 부르고, 슐라이어마흐가 "Uber den Werth des Socrates als Philosophen"(1818)에서 종래의 소크라테스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크세노폰에 의지하여 역사적 소크라테스를 재구성하려 한 점을 비판(첫째 크세노폰은 정치가나 군인에 가까우므로 철학적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는데 있어 최고의 자격을 갖춘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를 변호하는데 과도한 열정을 쏟은 나머지 전통적인 가치의 수호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한 이래 20세기 초까지 크세노폰을 평가절하 하는 학계경향이 이어졌다. 크세노폰이 전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이라면 과연 그런 사람이 왜 재판받고 처형되었는지 그 이유마저도 알기 어렵다는 비판은 계속 이어져 결국에는 플라톤이 전하는 소크라테스만이 역사적 소크라테스와 부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정리되었으며, J. Burnet과 A. E. Taylor는 이러한 견해를 대변한다고 한다. 반면 크세노폰에 대한 거부에 있어서는 외관상 학계논의가 정리된 듯하였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크세노폰을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조차 플라톤, 아리스토파네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저술한 사료 중 어느 것에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일치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고, 이 문제에 더하여 19세기 독일의 K. Joel에 의해 소크라테스 대화편들의 허구적 성격이 지적되면서, 소크라테스 문제에 대한 회의론(소크라테스 문제는 잘못 제기된 문제로, 크세노폰이나 플라톤이 저술한 사료가 역사적 소크라테스를 재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려면 이들 저자가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저술하였다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증언하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라는 하나의 문학장르에 속하는 그런 작품을 저술한 것에 불과하다.)의 비판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비판은 E. Dupreel, O. Gigon에 의해 20세기 중반까지 계속 이어져, 현재 소크라테스의 문제는 어느 쪽으로든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위 책 30-42쪽. 고트프리드 마틴(이강석 역), **대화의 철학 소크라테스**, 한길사, 2004, 21-28쪽도 이 문제와 관련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피스트들을 철학의 적(敵)으로 간주하였다면서, 막상 자신이 재판받게 되자 태도를 바꾸어 철학을 지키기 위해 철학의 적인 소피스트들의 수사학 기술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불일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11]

이러한 모순점 때문에 한편으로 역사적 소크라테스가 **‘변론’**에 그려진 그런 변론을 하였을 리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12], 반대로 **‘변론’**은 글자 그대로는 아니라

---

11) **‘변론’**의 역사적 정확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서 있는 저명한 학자는 이것을 하나의 패러디로 설명한다. J. Burnet (edited with notes), *Plato's Euthyphro, Apology of Socrates, Crito*, Clarendon Paperbacks, 1924 (reprint 2002), 146-148쪽, “Riddell은 이 서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변론’**의) 이 서문부분은 아마도 아테네 연설가들의 변론문들과 한 단락 한 단락씩 완벽히 대칭을 이루는지 모른다. 허위와 그럼직한 것의 결합 내지 공존에 대한 비난하기, 변론경험의 부인(Lys. 19.1, 19.2, Isaeus.10.1), 법정에 어울리지 않은 말투로 변론하는 것에 대한 양해구하기(Isocr.15.179), 법정과 법률에 대해 익숙치 않은 것을 양해해 달라는 간청(Isocr.15.38), 배심원들이 편견 없이 들어줄 것에 대한 간청(Lys.19.2, 19.3), 말 잘하는 사람(전문가)이라는 주장에 대한 항의(Aesch.2.24.), 늙은 사람에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을 거부하겠다는 천명하기(Isocr). 이 서문의 대부분은 이러한 토포스들(topics)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테네 연설가들(the Orators)의 변론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찰은 참이고 또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변론’**에서의 미묘한 수사학적 기술은 역사적 소크라테스와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은 적절치 않다. 사실은 이 서문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의 ‘패러디’라는 것이다. 법정에서 말하는 방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17d3) 그 자체가 패러디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들 중의 하나이다. 소크라테스가 부인했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cum grano salis*) 받아들여져야 한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당대의 변론술에 대해 완벽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기에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소크라테스는 이들의 토포스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Phaedrus*는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토포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테네 연설가들보다 더 잘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여기에 소크라테스가 변론술로 바쁘게 지낸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던 것도 더해야 할 것이다. … 소크라테스는 *Phaedrus*에서 당대의 수사학에서의 토포스를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선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통상적인 토포스들을 사실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훌륭한 연설가의 역할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진정한 소크라테스적 역설로 이끌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 그대로의 보고문을 가진 것이라 생각하지 않더라도, 플라톤이 여기서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법정변론가들 세계의 기술들을,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그런 것을 했다면 하였을 그런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린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방해할 것은 없다.”

12) Thomas C. Brickhouse and Nicholas D. Smith, *Socrates on the Tri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5쪽, “‘**변론’**이 핵심적으로 Plato의 허구, ‘그의 스승에 대한 명백한 이상화’, ‘철학자의 삶을 옹호하기 위한 선전용 변론문’에 불과하다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있다. ‘허구이론’은 재판에 의해 촉발된 소크라테스 변론문학은 소크라테스의 말이나 생각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재판의 바로 그 순간에, 그 인물들을 옹호하지만 동시에 위험에 처한 상황에 배치시켜 그 인물들의 말들을 드러내는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역사적 소크라테스가 변론 때 실제로 했던 말과 논조를 담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13] 여기서 고전연구가들 사이의 엇갈리는 주장들과 그 논거들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변론'**이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고전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로 보인다.[14] 물론 **'변론'**의

방식으로 사용해서, 철학자의 고매성 자체를 옹호하려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에서는 법정에서 변론하는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은 문학적 장치에 불과하여 철학의 친구들이 그것을 통해 철학이 낳는 헌신된, 원칙에 맞게 사는 인생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철학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위 글의 각주에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허구이론 지지자들이 소개되어 있다.

13) J. Burnet (edited with notes), *Plato's Euthyphro, Apology of Socrates, Crito*, Clarendon Paperbacks, 1924 (reprint 2002), 143-144쪽, "**'변론'**에 관한 첫 번째 의문은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나 역사적 문서로 여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변론'**이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한 변론을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 당장에 인정할 수 있다. 플라톤은 신문사의 보도기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반면 우리는 그가 재판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34a1, 38b6). 따라서 우리가 허구라 여기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고에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플라톤이 기록한 다른 대화편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 플라톤이 옆에 있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대화편의 내용은 그 당시에 전개되었을 수도 있었을 내용을 알려줄 것이라는 점, 대화편들이 소크라테스의 인간성이나 생각을 잘못 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대화편들을 이상 더 많이 받아들이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변론'**은 그 자체로 명백하게 다른 대화편들과 다른 지위에 있다. 플라톤이 다른 소크라테스 추종자들과 함께 법정에 있었고, 청중 외에도 500명(501명)의 배심원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재판의 유명세에 비추어보면 많은 수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플라톤의 의도는 실제 있었던 그대로 그의 성품과 행동을 전개시킴으로써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억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재판 당시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변론'**의 출간 시기에 아직 생존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소크라테스의 태도에 대해,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변론 때 제시한 주장들에 관해 허구적인 설명을 주었다면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는데 실패했을 것이다. 따라서 **'변론'**이 실질에 있어서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변론 그대로인 것으로 여겨도 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해 Grote는 그렇다고 말하고, 현대의 대부분의 유능한 학자들도 이제는 다소간에는 이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면 **'변론'**이야말로 우리가 역사적 소크라테스를 재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신성한 근거가 될 것이다." Thomas C. Brickhouse and Nicholas D. Smith, *Socrates on the Tri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4쪽은 이러한 Burnet의 생각이 부당전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불행하게도 Burnet이 그의 가정을 제시한 방식은 증명해야 할 것을 전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Plato가 소크라테스의 성품과 활동을 진실되게 그대로 보이기를 원하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쟁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14) Thomas C. Brickhouse and Nicholas D. Smith, *Socrates on the Tri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9쪽, "**'변론'**의 기본적인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결정적인 이유는

역사적 정확성을 지지하는 견해들도 **'변론'**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실재로 했던 변론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 있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플라톤이 **'변론'**을 창작하는데 있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의 기본적인 사실로 전제한 것, 따라서 현대인도 받아들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 벌금형을 제안했으나 결국 처형되었다는 것 정도이다. 그러나 **'변론'** 중에 이러한 사실들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실제의 변론을 가감 수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합의를 얻기 어려운 것이다. 반면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소크라테스의 모습, 즉 철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철학을 위해 순교하겠다는 결연한 철학자로서의 소크라테스는 주로 이 플라톤판의 **'변론'**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의 소크라테스는 일정한 방향의 해석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지 이런 모습의 소크라테스가 역사적 실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정당하고 또 정확한 해답이 여기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이하에서 **'변론'**에서 어떤 수사학 기술들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이해 및 향후의 논의에도 다소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III. '변론'과 수사학적 기술들

1. 고전 수사학의 간략한 역사와 주요인물

수사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BC 450년대에 그리스 시라쿠사에서 코락스와 티시아스에 의해 시작되어 이후 로마 공화정시대까지 이어져왔다.[15] 수사학은 처음부터 공적 말하기(public speaking)의 기술로 시작되었는데, 주로 의회에서 또 법정과

존재하지 않고 또 **'변론'**이 정확하다고 믿을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하므로 우리는 (대부분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Plato의 **'변론'**이 실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말했던 것의 논조와 실질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결론짓는다. 물론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말하였던 특정한 요점들을 Plato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정확하게 말하였다는 식의 교조적 확신과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

15) 수사학에 대한 연구나 교육은 고전시대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이후에도, 또 현대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고전시대에 그치고 이후로는 '글짓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이해하는 듯하다. 고전 수사학이 어떻게 오늘날의 법정변론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따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돌린다.

기념식장에서 펼쳐졌으므로, 수사학의 탄생배경에는 고전시대 그리스의 정치 및 사회문화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특히 법정변론의 기술은 소송당사자들이 배심원들 앞에서 직접 구두로 변론해서 배심원들의 표결로 재판하는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현대와 같이 법정변론을 전문으로 하는 소송대리인과 같은 제도가 없고 누구든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원들 앞에서 직접 구두변론을 해야 했으며, 또 직업 법관 제도도 없어서 소송전반의 진행을 주관하는 Basileus는 있어도 평결은 모든 시민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배심원의 표결에 의해 평결을 얻었다.[16]

법정변론기술을 포함한 수사학은 코락스와 티시아스가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안티폰, 고르기아스, 뤼시아스, 이소크라테스 등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시대에 활약하던 사람들이고[17],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법정변론에 관한 이론서인 *Rhetorica Ad Herennium*을 저술한 무명(anonymous)의 작가, 키케로, 퀸틸리아누스

---

16) 소크라테스가 재판받았던 시대의 그리스 재판제도에 대해서는 M. Gagarin, *Antiphon and Andocides - The Oratory of Classical Greece, vol. 1*, (Trans. M. Gagarin, D. MacDowell),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1998 중의 Introduction 부분, 그리고 최자영, **고대 그리스 법제사**, 아카넷, 2007, pp.567-569 참조.

17) 현대까지 고전 그리스 시대의 법정변론문들이 전해져 오게 된 과정에는 첫째 안티폰의 역할, 둘째는 Aristophanes of Byzantium과 Aristarchus of Samothrace가 기원전 3세기경에 아테네 위대한 연설가들 10인(the Attic Orators, 또는 The Orators)의 변론 및 연설문을 모아 "Alexandrian Canon"을 편찬한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안티폰은 처음으로 법정변론을 비롯한 연설문을 기록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안티폰에 의해 법정변론문대필업(logography, 법정에서 변론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변론문을 대신 써주는 것.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위한 변론문을 사서 암기한 다음, 법정에서 변론하였다고 한다)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그 결과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전역에서 연설이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기록되는 현상은 아테네에 특유한 것이라 한다. 아테네의 위대한 연설가들(the Orators)은 알파벳순서로 Aeschines, Andocides, Antiphon, Demosthenes, Dinarchus, Hyperdes, Isaeus, Isocrates, Lycurgus, Lysias이고, 다시 출생연대 순서로 배열하면 Antiphon (480-411), Lysias (445-380), Andocides (440-390), Isocrates (436-338), Isaeus (415-340), Aeschines (395-322), Hyperides (390-322), Lycurgus (390-324), Demosthenes (384-322), Dinarchus (360-290)가 된다. 이들 작품 중 몇몇은 의문의 여지없이 위작인데, 그것은 후대의 위조품(forgeries)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대의 다른 작가의 것이 섞인 것이며, 현대의 연구자들은 Demosthenes의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 중 7편 정도는 Pasion의 아들, Apollodorus의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이 Apollodorus는 종종 '11번째 연설가'로 불린다고 한다. M. Gagarin, "Series Introduction", *Antiphon and Andocides - The Oratory of Classical Greece, vol. 1*, (Trans. M. Gagarin, D. MacDowell),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1998. xii. 참조. 그리고 Gorgias는 실제 사건을 두고 변론문을 작성해 주지는 않았고, 따라서 logography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주로 신화 등에서 가상의 사건을 상정해 두고 변론문을 작성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등에 의해 고전수사학의 이론은 체계화되었다[18].

2. 법정변론에서 변론의 기술("Topos")과 그 예시

고전 그리스시대에서 연설은 의회나 법정 내지 기념식장에서 참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말'을 통해서 청중을 설득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효과적인 전략과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은 연설에서 각 부분의 구성이나 순서 내지 배치와 같은 형식적인 면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단어의 선택, 문장의 연결, 단어나 글이 주는 어감 내지 느낌 같은 것에 관계되기도 하고, 또 논리적인 면이나 감성적인 면을 불러내는 것에 관계된 것, 표정이나 목소리, 몸의 움직임 등 연설가 자신의 신체적인 면에 관계된 것이기도 하였다.[19] 또한 연설에 사용되는 각종의 기술들은,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 소송당사자가 이런 표현이나 기술을 사용해 보았더니 배심원들을 설득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검토되고 또 사후적으로 검증된 것들이 널리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이 시기의 법정변론문들은 특정한 면에서는 널리 굳어진 형식이나 또는 관용표현이라 마찬가지라 불러도 될 것 같은 요소들을 담게 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두고 관찰해보면 특정한 요소가 더 발전하거나 강조되는 현상도 일어나게 된다. 특히 설득력 있는 논리와 효과적인 사고방식, 참신한 표현방법, 새로운 논증방법이 소개되면 그것은 즉시 변론에서 원용되어 그 효과를 검증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Topos (common place, 복수형은 Topoi)'라 부르는데, 역자에 따라서는 '논고

---

18) 대표적인 저술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무명작가의 *Rhetorica Ad Herennium* (종래 키케로의 저술로 여겨져 왔지만, 현대에는 키케로 시대에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 키케로의 *De Inventione* (About the composition of arguments), *De Oratore ad Quintum fratrem libri tres* (On the Orator, three books for his brother Quintus), *De Partitionibus Oratoriae* (About the subdivisions of oratory), *De Optimo Genere Oratorum* (About the Best Kind of Orators), *Paradoxa Stoicorum* (Stoic Paradoxes), *Brutus* (For Brutus, a short history of Roman rhetoric and orators dedicated to Marcus Junius Brutus), ***Orator*** *ad M. Brutum* (About the Orator, also dedicated to Brutus), ***Topica***, 퀸틸리안의 *Institutione*이고, 현대까지 모두 전하고 있다.

19) 키케로 이래로 연설가가 효과적인 연설을 위해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각각 착상, 배치, 표현, 기억, 실행으로 나누며, 여기에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세부사항들 내지 지침들도 모두 'Topos'라 부른다. 따라서 'Topos'라는 것은 이 모든 영역에 걸치는 것으로, 법정변론을 위해 모방하고 연습해야 하는 변론의 기술도 각각의 영역 모두에 관계되는 것이다.

(論庫)'[20]라 하기도 하고, '말터'[21]라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변론의 기술' 내지 '변론에서의 관용적 표현'[22]이라 부르기로 한다.

다음으로 **'변론'**이 쓰여진 시점[23]까지 활약하던 소피스트 또는 변론문대필작가로서 법정변론기술의 연구와 교육에 관계된 주요한 인물로 코락스, 안티폰, 고르기아스, 뤼시아스, 이소크라테스를 들 수 있으며, 따라서 **'변론'**에서 소피스트들의 법정변론기술을 찾는다면 비교대상이 되는 소피스트들의 범위는 일단 위 사람들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비교대상에서 뤼시아스와 이소크라테스를 제외하고, 대신 아리스토텔레스를 추가하려고 한다.[24] 또 위의 인물들에 의해 소개

---

20) 키케로의 *De Partitionibus Oratoriae*의 역서인 안재원, **수사학-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길, 2006, 76-77쪽.

21) 마찬가지로 키케로의 *De Partitionibus Oratoriae*의 역서인 양태종, **생각의 수사학**, 유로, 2007, 20쪽.

22) 역서에 따라서는 Topoi에 해당하는 'loci communes'를 '공통된 말터' 외에 '상투어'로 옮긴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게르트 외딩(박성철 역), **고전수사학**, 동문선, 2003, 18쪽.

23) **'변론'**이 소크라테스의 재판 및 처형이 있은 해로부터 대략 10년 내에 저술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외 플라톤의 **'변론'**이 크세노폰의 것보다 먼저 저술되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저술되었는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먼저 저술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그 이상으로 **'변론'**의 정확한 저술 시기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Thomas C. Brickhouse and Nicholas D. Smith, *Socrates on the Tri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1-2쪽.

24) 그 이유는, 먼저 뤼시아스의 경우, 그가 법정변론기술의 진보에 기여한 것은 크게 변론문을 산문스타일로 작법하는데 있어 간결성과 명료성을 유지하면서 생동감 있게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W. R. M. Lamb, Introduction, *Lysias,* trans., W. R. M. Lamb, Harvard University Press, Loeb Classic, 1930, x vii,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논증 및 결론부분에서 감정적 호소력이 다소 결핍된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 로마시대 수사학자인 Dionysius of Halicarnassus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고 한다.), **'변론'**의 그리스어 원문에서 이 기술이 사용되었음을 지적해 내는 것은 필자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라틴어, 영어, 국어 등으로 각각 번역된 **'변론'** 작품들을 서로 대조해 보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근거로서는 무가치할 것이다) 우리말의 법정변론기술에서도 간결성과 생동감 있는 사실관계 진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뤼시아스가 법정변론문 대필작가(logographer)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것이, 아테네에서 30인 참주정권이 들어서면서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겨우 Megara로 탈출하였다가 30인 참주정이 붕괴되어 아테네로 돌아온 이후, 즉 BC 403년경 정도이므로, BC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을 때는 그의 경력이 막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따라서 플라톤이 **'변론'**을 저술한 시기를 소크라테스의 처형 후 10년 이내로 본다면 플라톤이 뤼시아스의 변론기술을 참조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이 반드시 무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뤼시아스의 선대 수사학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한층 더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소크라테스의 경우 법정변론문 대필작가로서의 경력은 비교적 짧고 작품수도 6편 정도로 적으며 그보다는 철학과 정치 교육에 주력하였고(M. Gagarin, *et al.*, "Introduction to Isocrates", *Isocrates, I*,

되고 보급된 수사학적 기술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25)

기술/인물	코락스	안티폰26)	고르기아스	아리스토텔레스
변론의 기술	‘코락스’ 논증(A) 서두-주제제시-논의-요약정리식 구성(B)	소거법(C), 관용표현들 [예 : 상대방을 칭찬하고 자신은 변론에 서툴다고 말하기(D)]	대조대구 활용(E), ‘저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식 구성(F), 말이 빚어낸 영향으로 책임 돌리기(G)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H1) 호감을 얻고 나쁜 평판을 제거하기(H2) 생략삼단논법(H3)

The Oratory of Classical Greece, Vol. 1,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2000, 1, 11쪽. 김봉철, **전환기 그리스 지식인, 이소크라테스**, 신서원 2004, 57, 65쪽은 이 중 *Against Euthynus, Trapeziticus* 두 편을 제외한 네 편의 작품에 대해서는 이소크라테스의 저술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활동시기에 있어서도 뤼시아스의 경우와 비슷한 사정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그가 ‘수사학’에서 서술한 것은 새로운 변론기술의 발견에 해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변론의 기술을 체계화이론화한 것이므로, **‘변론’**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찾을 수 있다면 언급하는 편이 **‘변론’**의 법정변론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5) 표에 정리된 코락스, 안티폰, 고르기아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변론(법적 논증)기술에 대한 소개와 현대에 우리나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분석한 것으로, 하재홍, “고전수사학과 법적 논증술”, **경기법학논총**, 제10호, 2010 참조. 고전시대에 법정변론의 기술 중 논거개발, 즉 ‘착상’에 관한 부분은 쟁점이론(ststus theory)으로 체계화되었는데, 사실관계-정의-정당화-소권·법률해석 등으로 구분해서 쌍방이 전선을 형성하고 다투는 것이다. 국내에는 간략한 개요 정도가 소개되어 있는데 [최병조, **로마법강의**, 박영사, 2006, 570쪽], 우리의 구두변론에 있어서도 형사사건에 뿐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이론의 큰 틀은 특별한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6) 안티폰의 변론문으로 6편(1. Against Stepmother, 2. First Tetralogie, 3. Second Tetralogie, 4. Third Tetralogie, 5. On the Murder of Herodes, 6. On the Chorus Boy)이 전하는데 그 중 세 편의 Tetralogie는 기소인과 피고인이 각각 2회씩 주장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순서로 네 편의 연설문이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이 Tetralogie는 가상의 사건을 두고 변론의 훈련으로 만든 작품인 반면, 나머지 세 편은 실제 살인사건에서의 변론문으로 알려져 있다. 안티폰의 작품들은 아직 국내에 번역되어 있지 않으며, 이 글에서 소개한 단락들은 M. Gagarin, *Antiphon and Andocides - The Oratory of Classical Greece, vol. 1*, (Trans. M. Gagarin, D. MacDowell),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1998에 소개된 것을 기초로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안티폰 작품을 인용하는 방식은 널리 통일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Ant. 2.3.2’는 안티폰의 두 번째 작품의 세 번째 연설 중 두 번째 단락이라는 뜻이다). 그 외 안티폰의 작품은 M. Gagarin(ed.), *Antiphon The Speech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M. Gagarin and P. Woodruff(ed), *Early Greek Political Thought from Hormer to the Sophi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이하에서는 위의 각 기술들을 중심으로 **'변론'**의 순서에 따라 수사학적 변론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변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사학적 변론기술들

가. **'변론'**의 형식과 구성

'변론'의 첫 연설의 구성이 코락스가 창안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은 널리 지적되고 있다. 코락스는 형사변론문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전통을 수립하였는데, 코락스에 의하면 변론문의 구성은 서두(introduction, prologue, exordium, prooemium, peincipium), 논제제시(proposition, propositio)[27], 논의(사실관계 진술과 논증. narration, narratio[28], argumentation, argumentaio)[29], 결론(conclusion, epilogue, epilogus, conclusio)[30]의 순서로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 내지 구성은 단순히 고대의 유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까지도 변론문 등 논증적인 유형의 글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로마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계승한 수사학자들(키케로, 퀸틸리안, 그리고 *Rhetorica ad Herennium*의 저자인 무명인)은 코락스에 의해 고안된 구성부분들을 발전시키고 개량하였는데, 이것은 '논증요약 Argument Summary' 부분을 추가하여 'Introduction (Exordium)', 'Statement of the Case (Narration)', 'Argument Summary (Partito)', 'Proof of the Case (Confimatio)', 'Conclusion (Peroratio)' 등 5부분으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체계화하였으며, 이러한 5부분 구성법이 고전기 이후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K. J. Maidment(tr.), *Minor Attic Orators Ⅰ(Antiphon・Andocid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41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상의 책들 모두에 안티폰의 법정변론기술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해설이 실려 있다. 안티폰과 그 작품에 대한 자세한 분석서로 M. Gagarin, *Antiphon the Athenia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2가 있다.

27) 현재 쟁점으로서 논의하고자 하는 논제, 화자가 옹호하고자 하는 입장을 제시하기.

28) 연설의 구성으로서는 두 번째 부분으로,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관계를 설명(또는 주장)하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narration 부분은 간결하고(brief), 분명하고(clear), 그럼직한(plausible) 내용이어야 한다.

29) argumentation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proof, confirmatio), 다른 하나는 상대방 주장을 논박하는 부분(refutation, refutatio, reprehensio)이다. argumentation과 conclusion 사이에 삽입부분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digression (digressio)이라 부른다.

30) 연설의 구성으로서는 마지막 부분. 수사학자들이 강조하는 규칙에 다소 변용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중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또 내용을 짧게 요약하는 부분을 넣어야 한다.

뿐 아니라, 현대 미합중국의 연방대법원 규칙 제14조 및 제24조에서도 상소이유서 작성방법으로 요구하는 것이 이것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다.[31)]

현대에 **‘변론’**의 첫 연설의 구성에 대한 연구들은 코락스 시대로 소급되는 초기의 구성법이 아니라 현대적인 구성법에 따라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J. Burnet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32)]

a. Prooemium (introduction) : 17a1-18a6[33)]

---

31) M. Frost, *Introduction of Classical Legal Rhetoric: A Lost Heritage*, Ashgate, 2005, 44쪽. 미국에서는 비단 법문서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논증적 글쓰기에 있어 교육과정의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5분법에 근거를 둔 글쓰기 교육이 ‘a hamburger essay’, ‘one three one essay’, ‘a three tier essay’ 등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실제 작문연습에 활용되고 있다.

32) J. Burnet (edited with notes,) *Plato’s Euthyphro, Apology of Socrates, Crito*, Clarendon Paperbacks, 1924 (reprint 2002), 146, 153, 160, 180, 186, 197, 224면. 이에 따른 것으로 David Leibowittz, *The Ironic Defence of Socrates Plato’s Ap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8쪽. C. D. C Reeve, *Socrates in the Apology - an essay on the plato’s apology of socrates,*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9, 3면은 the Opening address (17a1-18a6), prothesis (18a7-19a7), defence proper (19a8-24b2), defence against formal charge (24b3-28a1), digression (28a2-34b5), epilogue (34b6-35d8)로 구성되었다고 하여 본문의 단락나누기에 일부 차이가 있다.

33) 플라톤의 각 대화편은 ‘스테파누스 페이지’번호가 붙어있다. 1578년에 플라톤 대화편을 세 권의 전집으로 편집출판한 스테파누스(Henri Estienne, 1528-1598. Stephanus는 그의 라틴식 이름)가 모든 전집들에 연속적인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였고 또 그리스어 원문과 라틴어번역이 병행하는 각 면의 중간부분에 a, b, c, d, e 등의 기호를 붙여 단락을 구분지었는데, 이것이 플라톤 대화편의 각 단락이나 그 내용을 지칭할 때 전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론’**은 17쪽부터 시작하여 첫 단락은 ‘17a’로 표시되는 것이다(상세한 내용은 http://plato-dialogues.org/faq/faq007.htm 참조). 현대에는 여기에 더하여 스테파누스 판의 각 면과 단락에 더하여 단락 내에서의 행의 번호까지 추가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행 번호는 영국의 플라톤 연구가 John Burnet (1863～1928)이 플라톤 전집(Platonis Opera, ‘Oxford Classical Texts’ 중의 하나이다)을 출간하면서 부여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이러한 번호들은 모두 원어인 그리스어 판을 기준으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플라톤 전집을 번역하는데 있어서는 번역의 성격상 번역본에 단락까지는 그대로 지켜서 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행 번호까지 정확하게 따라 구분지으며 번역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대개의 영어번역본들은 대체로 스테파누스 페이지번호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변론’**의 우리말 번역본들은 대체로 단락구분도 표시하고 있지 않으며, 박종현 역의 **‘변론’**도 우리말 번역문에까지 정확하게 단락을 구분지어 표시하고는 있지 않다(박종현 역, 플라톤의 네 대화편 에우티프론/소크라테스의 변론/크리톤/파이돈, 일러두기 1. 참조). 그러나 전문연구가들 사이에 행번호까지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용의 문제 때문에 이 글에서도 (우리말 번역본 기준으로 그 책의 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b. Prothesis (statement of the case) : 18a7-19a7
c. Defence against First Accuser : 19a8-24b2
d. Defence against present Accuser : 24b3-28b2
e. Digression : 28b3-34b5
f. Epilogy : 34b6-35d8

Burnet의 분석법은 코락스의 4분법이 아니라 로마시대 이후에 수정된 구분법에 따른 것이므로 **'변론'**이 쓰인 역사적인 시점에 비추어보면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서두 부분에서의 관용표현들

수사학 이론에서 서두 부분의 역할로 학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서두 부분은 논제제시 및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의 논의를 받아들일 수 있게 청중을 준비시키는 단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청중이 어수선한 상태에 있으면 청중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말을 해야 하고, 청중이 화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청중의 호감과 신뢰를 얻는 말을 해야 하며, 특히 청중이 화자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편견을 제거하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서두부분은 청중이 화자에 호감을 가지게(disposed), 또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attentive) 수용할 수 있도록(receptive)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말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또 사건의 특성에 맞게 수정되거나 가감 변경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변론에서 하나의 기술로서 꼭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권유되는 것이다. 서두뿐 아니라 변론문의 나머지 각 구성부분에 사용되는 표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서두에 적당한 표현들은 법정변론의 사례들마다 검증되어 효과가 인정된 것들이 다른 사람의 변론에서도 모방되거나 보완되어 계속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34] 그래서 고전시기의 수사학적 운동이란 새로운 사고와 표현방식이 널리 사

가능한대로 행 번호까지 밝히겠지만 우리말 대본에서 대응하는 내용을 소개할 때는 번역본에 표시된 단락번호까지만 표시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원문에 비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 이유로 이 글에서 스테파누스페이지 번호를 표시하였더라도 독자들은 우리말 번역본에서 정확히 그에 대응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쉽게 찾기 어려울 것인데, 인용문제에 관심이 없는 일반독자라면 이런 문제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곤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회에 영향을 미치고 널리 회자되는 유행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법정변론(의 서두)에서 사용된 수사학적 관용표현들로 알려져 있는 것들로서 **'변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35] 첫째 비교대상이 되는 자료와 그 출처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확한 점이 있지만, '법률이나 법정에서의 재판 내지 변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경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17d)'[36], '(상대측 주장에) 거짓말과 그럴듯한 말이 결합된 것에 대해 비난하기(17a)'[37], '(변론하는 자신은) 법정에서 변론해 본 경험이 없다고 변론경험을 부인하기'(17d), '법정에 어울리지 않은 말투로 변론하는 것에 대한 양해구하기'(17c, 18a), '법정과 법률에 대해 익숙지 않은 것을 양해해 달라는 간청'(18a)[38], '배심원들에게 편견 없이 들어줄 것에 대한 간청'(18a), '말 잘하는 사람(교묘하게 말을 꾸며내는 사람)이라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부인 내지 항의'(17a, b), '늙은 사람에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을 거부하겠다는 천명하기'(17c)[39] 등과 같은 법정변론의 일반적 기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

34) 특히 안티폰이 그러한 관용표현들로 변론문을 기록하여 남기기 시작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전하게 되었다.

35) **'변론'**의 서두부분에도 고전기 법정변론기술들이 동원되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지적되고 있지만 피상적인 면이 있다. 특히 서두 부분에 사용된 기술이 누구에게서 유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전학자들 사이에 다소 부정확한 면이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Riddell은 서두 부분의 기술이 뤼시아스 내지 이소크라테스, 아에스키네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Burnet는 이 설명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주 39) 참조.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는 기술들은 앞서 안티폰의 작품들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안티폰 이후의 뤼시아스 등에서 찾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다.

36) "지금 저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나이 일흔이 되어서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곳의 말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생소합니다.(17d)" 참고로 안티폰의 첫 변론문(Against the stepmother)은 "배심원 여러분, 저는 아직 어린 편이고 또 법률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습니다."(Ant. 1.1)는 말로 시작한다. 안티폰의 다섯째 변론문도 "저는 제게 닥친 어려움과 불운에 상응할 정도로 실질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말 잘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Ant. 5.1.)는 말로 시작한다.

37) 안티폰의 다섯째 변론문 중 "배심원들을 확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거짓말을 사람들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무죄평결을 받습니다."는 표현(5.1.3.).

38) "이것이 저의 요청입니다. 즉 제가 말할 때 혹 실수를 하더라도 저를 용서하시고 그런 실수는 저의 경험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 무엇을 꾸며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 반대로 제가 무엇이든 바른대로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을 꾸며낼 현명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Ant. 5.1.5.).

39) Burnet은 이상과 같은 Riddell의 설명을 소개한 다음, 이런 식의 수사학적 기술은 역사적 소크라테스와 맞지 않는다고 한 Riddell의 결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한다. J. Burnet (edited with notes), *Plato's Euthyphro, Apology of Socrates, Crito*, Clarendon Paperbacks, 1924 (reprint 2002), 147쪽. 한편 Riddell이 변론에서 수사학적

Riddell에 의해 지적되었다. 둘째 그 외에도 '변론해야 하는 사람이 변론에 있어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변론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18d)'[40], '상대방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며, 그것으로써 상대측이 잘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선언하기(24c, 27a)'[41], '상대방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변론하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였을 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25c-25e)'[42], '상대방의 주장이나 태도에 대한 놀라움의 표시(17a)'[43],

---

표현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출처에 대해 설명하기를, 변론경험의 부인으로 Lys. 19.1, 19.2, Isaeus.10.1을, 법정에 어울리지 않은 말투로 변론하는 것에 대한 양해 구하기는 Isocr. 15.179를, 법정과 법률에 대해 익숙지 않은 것을 양해해 달라는 간청에 대해서는 Isocr. 15.38을, 배심원들이 편견 없이 들어줄 것에 대한 간청에 대해서는 Lys. 19.2, 19.3을, 말 잘하는 사람(전문가)이라는 주장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는 Aesch. 2.24.를, 늙은 사람에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을 거부하겠다는 천명하기에 대해서는 Isocr를 들고 있다. 반면 거짓말과 그럴듯한 말의 공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는다. Riddell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료의 선후에 있어서는 플라톤의 **'변론'**이 선대나 동시대의 다른 변론문들을 참조해서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사학적 표현들의 출처 내지 비교본으로서 플라톤의 **'변론'** 이후에 나온 작품들과 그 작가인 Lysias, Isocrates, Isaeus, Aeschenes 등을 든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40) "배심원 여러분, 저는 아직 어린 편이고 또 법률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 탓에, 이 사건에서 끔찍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에 대한 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 아버지가 제게 살인자들을 기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살인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면, 그것은 제가 절대 저의 소송상대방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 이복형제들과 그 어머니를 상대로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Ant. 1.1.), "저는 제게 닥친 어려움과 불운에 상응할 정도로 실질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말 잘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불운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의 부족은 저를 불리한 상태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당한 기소로 인해 육체적인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할 때 저의 경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여기, 저의 석방이 사실들을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가에 있을 때 말 잘하지 못하는 무능력은 저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Ant. 5.1.1-2)

41) **'변론'**에서는 "(기소인의 주장은,) 소크라테스는 신들을 아니 믿되, 신들을 믿음으로써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고 한다(27a). 이런 표현은 안티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사건으로 저들을 기소하게 되었지만,) 저들이 아버지를 위해 복수할 것과 제가 범인을 기소하도록 도울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해 왔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정확히 그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저들은 제가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따라서 제가 또한 기소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바로 그것으로써 살인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Ant. 1.2.)가 있다.

42) "제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의 위험이 성물(聖物) 절도 재판에서 생기는 위험보다 적다고 생각하였다면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성물절도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저는 다소간 재산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목숨이나 이 도시를 떠나야 하게

‘변론하는 사람 자신의 공적(功績)에 대해 소개하기(32a-32d)’[44] 등이 있다.

다. 변론기술들

(1) ‘코락스’ 논증

형사변론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변론의 중심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개연성의 문제이다. 법정에서 찾아지는 진실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개연적 진실이다. 기소인이나 피고인이 펼치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그럴 듯한 것’이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개연적 주장에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개연성의 측면에서 변론을 구성하는 것은 일찍이 코락스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안티폰의 변론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다.[45] 이러한 개연성의 점에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돈을 꾸어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고, 완전한 파멸에 직면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면, 저는 제 자녀들에게 수치스러운 불명예를 남길 것입니다. 설사 추방을 당한다 해도 노년에 고향을 떠난 사람은 낯선 외지에서 거지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Ant. 2.2.9).

43) “저는 저의 형제를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는 왜 제가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을까요?”(Ant. 1.5), “저는 제 형제의 대담함에 깜짝 놀랐습니다.”(Ant. 1.28).

44)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부적절한 일을 꾸민 일도, 그런 일을 한 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 저는 많은 특별부과세에 대해 넉넉하게 기부하였고, 3단갤리선 비용도 내었으며 뛰어난 합창단 공연도 만들어냈고, 많은 친구들에게 돈도 꾸어주었고, 많은 채무들에 대해서도 보증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지 소송으로 재산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저는 희생제사를 드렸고 법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온 일이니, 저를 불경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평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Ant. 2.2.12)고 한 것이 있고, 부친의 공적을 변론에 이용하는 것도 있다. “Mytilene의 반란 이전에 제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행동으로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 제 아버지는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다 처리하였고, 아테네나 Mytilene 어느 도시에서건 특별한 요구를 부과할 때는 어느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합창단 공연(Choral Production)도 감독하고 세금도 납부하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Aenus에 살기를 좋아했다면, 그것은 도시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보아 왔지만, 제 아버지는 다른 도시에서 시민으로 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적인 도시에 가 거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약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소송도 제기합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동하는 이유라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소송꾼들(sykophants)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 기소인들이 제 아버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제기했던 중상모략하는 말들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Ant. 5.76-79).

45) 예를 들어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술에 취하고 싸움을 시작할 개연성

있어서는 범행동기, 범행의 시간이나 장소,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태도, 발각의 위험과 그에 대한 대비책, 범행을 저지를만한 능력이나 공범자 내지 범행계획, 행위자의 나이나 교육정도 또는 평소의 성품 등에서 적절한 논거를 찾게 된다. 특히 코락스가 처음 구축한 것으로서, '정황상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사실은 그 범죄를 할 수 없다(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는 것은 '코락스 논증'으로 알려져 있다. 즉 상대방이 '정황상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은 일종의 개연성에 기초한 주장인 셈인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정말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반대되는 논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개연성(eikos)에 기초한 주장에 대해 역개연성(revers - eikos)에 기초한 논증을 하는 부분이다.[46]

또한 **'변론'**에 앞서 쓰인 안티폰의 변론문 중에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역개연성 논증을 펼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47] 이러한 역개연성 논증이 플라톤

(*eikos*)이 높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출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정점에 도달해 있으며, 음주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것들이 모두 화를 돋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자신을 잘 통제하기 마련인데, 음주에 익숙해 있고, 나이로 약해져 있으며 젊은이의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Ant. 4.3.2).

46) 이것이 바로 흔히 코락스 논증이라 부르는 유형이다. 정황상 어떤 일을 하였을 것이 명백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또 했을 리도 없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의심받게 된다는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이 논증은 Corax (Aristotle, *Rhetoric* 2.24.11)와 Tisias (Plato, *Phaedros* 273a-c)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7) 예를 들면 "기소인들은 주장하기를 제가 영리하여 저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인들은 동시에 저를 어리석음은 자로 기소하는데, 저의 행동이 저의 유죄를 증명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피해자 사이에 적개심이 상당하였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제가 유력한 용의자로 여기게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제가 명백한 용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제가 살인범행을 저지르고 유력한 용의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더 분명하였을 것이며, 심지어 저는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막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 자체가 제가 살인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제가 설사 적발을 면한다 해도 제가 혐의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Ant. 2.2.3),고 한 것과, "만약 피고인이야말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므로 여러분들이 피고인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피고인이 생각한다면, 그(의 생각)는 틀렸습니다. 피고인이 가장 중대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사람들로부터 의심받는다는 위험이 크다면 어느 누구도 살인을 계획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피해자 때문에 위험을 받기는 해도 그 위험이 피고인보다) 더 적은 사람이라면 피고인보다 더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혐의를 받는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그가 (피해자로 인해) 직면한 위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Ant. 2.3.7.)라고 한 것. 안티폰 변론 중에서는 누군가 정황상 의

에게 잘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변론기법으로 차용하였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변론'에서는 코락스에 의해 제시된 변론의 형식적 구성에서의 유사성 뿐 아니라 이러한 변론내용의 논리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소크라테스는 기소인들 주장들이 전부 거짓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소크라테스가 언변에 능숙하니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한 것을 들고 있다(17b-c[48]). 상대방이 언변에 뛰어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에 유의하라고 말하는 표현은 당시의 변론문들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관용표현이기도 한데, 언변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능숙한 언변 실력을 믿고 거짓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상대방이 언변에 능숙하다는 사실은 곧 도리어 그 사람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개연성을 이용한 논증이라 할 수 있다. 또 상대방으로서는 자신에 대해 '언변에 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면 이를 반박하기는 어렵다. 소크라테스로서는 변론에서 능숙한 언변으로 기소인 주장을 공격하게 되면 그것으로 무죄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인 주장이 옳다는 점을 보이게 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능숙한 언변을 보이지 않는다면 기소인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게 되어서 유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소인은 언변에 능하다는 것으로도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언변에 능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으로서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언변에

심받을 것이 널리 알려져 있을 때 그것이 누명을 씌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변론도 있다.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피해자를 미워했던 것만큼이나 피해자를 미워하였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 그를 살해하였을 법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용의자가 될 것은 분명하였다면, (이 범행을 통해) 제가 그들 대신에 비난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저에게도 상당히 확실하였을 것입니다."(Ant. 2.2.6).

48) "이들이 한 거짓말 가운데서도 이들에게서 제가 제일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언변에 능숙하니까 저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셔야만 한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혀 언변에 능숙하지 않음이 밝혀지기만 하면, 그 즉시로 저한테서 이들이 사실에 의해 꼼짝없이 반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데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몰염치한 점이라고 제겐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일컬어 언변에 능숙한 사람이라 일컫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건, 만약에 이들이 말하는 것이 이런 뜻이라면, 저야말로 이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연설가라는데 저 자신이 동의하겠기 때문입니다. 그리기에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듯, 진실이라곤 거의, 아니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댈 것이 아니라 진실에 기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변이 있다는 것이 진실을 말한다는 의미라면 진실만 말한다는 점에서 언변에 뛰어나다고 하겠지만,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런 언변이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 상대방 주장은 허물어질 것이다. 따라서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이상, 도리어 능숙한 언변을 이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둘째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복으로 해를 당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고의로 타인에 손해를 끼쳤다가는 해악을 되갚음 받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사실은 고의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것도 역개연성 논증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연적인 사실을 주장할 경우에 그 주장을 참으로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임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변론문에서 이에 관한 언급은 안티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49] **'변론'**에서도 밀레토스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킴으로써 죄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 주장이 전혀 그럼직하지 않다는 것, 극단적으로는 하나의 진지한 농담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24c). 논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청년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무엇이 청년을 훌륭하게 만드나? 법과 제도가 청년을 훌륭하게 만든다. 누가 법률을 아나? 배심원과 시민 모두가 법률을 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청년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만들 수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단 한 사람(즉 소크라테스)이 모든 청년을 타락하게 할 수 있나?'(24d-25a)[50]이며,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파락시킨다는 기소인 측의 주장이 전혀 그럼직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2) '고르기아스 스타일'의 말하기[51]

고르기아스 스타일의 말하기 기법으로 첫째 '저는 무엇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말

---

49) "여러분들이 개연성(*eikos*)에만 입각한 주장을 받아들이려 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은 반드시 확신을 가질 정도이어야 하겠습니다."(Ant. 2.1.2).

50) **'변론'**에서 이에 관한 논증은 소크라테스 특유의 논박술(엘렌코스) 형식을 취하고 있다.

51) 고르기아스의 작품 Encomium of Helen과 Defence of Palamedes이 전하는데, 전자는 M. Macdowell(ed., tr.), *Gorgias - Encomium of Helen*, Bristol Classical Press, 1982를 기초로, 후자는 J. Williams(ed.), *An Introduction to Classical Rhetoric - Essential Readings*, Wiley-Blackwell, 2009, 59-63쪽에 실린 것(이 책은 고르기아스의 앞 작품도 싣고 있다)을 기초로 사용하였고, 인용에 사용한 숫자는 해당 단락표시이다.

하기, 저는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 말했습니다.’는 식의 구성, 둘째 ‘말이 듣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소재 활용하기, 셋째 대조와 대구를 활용한 말하기(‘antithesis’), 넷째 도저히 말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는 무모한, 그러나 영리한 도전 등이다.[52]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는 **‘변론’**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성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먼저 저에 대한 최초의 거짓된 고발과 최초의 고발인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그런 연후에 나중의 고소와 나중의 고소인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18a-b)’, ‘그러면 변론을 해야겠습니다.(19a)’, ‘그러면 그 비방자들이 무슨 말을 하며 비방을 했을까요?(19b)’, ‘그러면 저에 대한 최초의 고발인들이 고발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을 상대로 한 변론은 이로써 충분한 것으로 해 두죠(24b)’ 등에서 볼 수 있다. ‘말의 영향’을 활용한 변론은 ‘배심원들이 오랫동안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더 나아가 ‘배심원들을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부당한 말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제대로 판결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벗어나려면 피고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있다. **‘변론’**에서도 “여러분께서 오랜 기간에 걸쳐 갖게 된 이 선입관을 저는 이 처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서 제거해야만 합니다.(19a)”, “이처럼 겹치고 겹친 이 선입관을 제가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서 제거할 수만 있다면, 제 스스로도 놀랄 것입니다.(24a)”와 같은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대조와 댓구를 활용한 표현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럴 듯한 말과 진실을 대조시키기[53] 등이 있다. 이러한 대조댓구를 활용한 표현법은 고르기아스가 처음 선보인 기술로 알려져 있지만, 안티폰이 훨씬 정교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54], **‘변론’**에서도 서두뿐 아니라

---

52) 고르기아스 스타일의 말하기에는 그 외에도 앞 문장(단락)의 마지막 말을 뒷 문장에서 적절하게 반복하기(anadiplosis), 유사한 일련의 부사구를 늘어놓는 것으로 문장을 마치기(homoioteleuton), 동일한 길이를 가지는 일련의 동사를 병행하여 문장을 마치기(isocolon) 등이 있지만, 번역상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요소를 우리말 번역의 **‘변론’**에서 찾아내거나 재연하기는 쉽지 않다.

53) “저는 이들(고소인들)로 인해서 제가 누구인지를 저 자신조차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 하였는데, 이토록 이들은 설득력 있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실이라고는 거의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 반면 여러분께서는 저한테서 모든 진실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테네인 여러분! 맹세코 여러분께선 이들의 경우처럼 미사여구의 연설도, 정연한 연설도 저한테서 듣지 못하시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말들로 되는 대로 말하게 되는 걸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는 제가 말하는 것들이 올바른 것들이라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17a-c).

54) 예를 들어 안티폰의 변론 중 “다른 사람들은 사실(*erga*)을 두고서 주장(*logoi*)이 참인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는 여러분을 행복해 보이게 만들어주지만, 저는 여러분을 실제로 그런 사람이게 만들어 주며, 또한 그는 부양이 전혀 필요없지만, 저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36d-e)”, “어쨌든 부족해서 제가 유죄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은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뻔뻔스러움과 몰염치가 부족해서며, 여러분이 듣기에 가장 기분 좋을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 하는 열의가 부족해서입니다.(38d)”, “그렇게 해서 사느니 이런 식으로 변론하고서 죽는 쪽을 택합니다.(38e)” 등이다.

끝으로 무모한 명제의 논증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보면,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한결 나은 사람이 한결 못한 사람에 의해서 해를 입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30d)’,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38e)’는 (얼핏 보면 상식적인 판단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고르기아스의 ‘헬레나 찬가’ 및 ‘팔라메데스의 변론’과의 유사성

고르기아스의 변론작품으로는 ‘헬레나 찬가(Encomium of Helen)’와 ‘팔라메데스의 변론(Defence of Palamedes)’ 두 편이 전한다. 헬레나는 트로이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신화 속에서 비난받아왔지만 고르기아스는 헬레나의 출신에 관한 말로, 헬레나의 행동은 신의 뜻이었다는 것, 말에 설득되었기 때문,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 등을 주요한 변론소재(topoi)로 삼아 헬레나를 위한 변론을 시도하였다.[55] **‘변론’**에서 변론의 포인트를 찾아낸 착상도 이와 매우 유사한데, 소크라테스의 출생에 대해서는 신적인 요소는 없으므로 출생과 직접 관련한 변론은 없지만, 신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으로 신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고(21a[56]), 또 자신의 캐물음을 신의 지시에 따른 것[57]으로, 또 무지에서

지 검토하지만 기소인들은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들의 주장을 사용합니다.”(Ant. 5.84),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였음에도 말 잘하는 능력 부족으로 배심원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여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파멸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말로써 진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배심원들을 확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무죄평결을 받습니다.”(5.3), “제가 말할 때 혹 실수를 하더라도 저를 용서하시고 그런 실수는 저의 경험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 무엇을 꾸며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 반대로 제가 무엇이든 바른대로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을 꾸며낼 현명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5.5) 등의 표현들이 있다.

55) 이 작품에서는 자세한 것은 M. Macdowell (ed., tr.), *Gorgias - Encomium of Helen*, Bristol Classical Press, 1982의 서문 참조.

비롯된 행동은 처벌할 것이 아니라 훈계와 가르침이 합당한 것[58]이라 변론하고 있다. 또 고대로부터 ‘죄 없이 기소되어 처벌받는 피고인의 변론’이 변론에서 하나의 장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시원쯤에 속하는 것이 ‘팔라메데스의 변론’이다. 신화 속의 팔라메데스는 트로이 전쟁의 개전 전에 참전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미친 척 밭을 갈고 있던 오디세우스의 잔꾀를 폭로하였다가 오디세우스의 원한을 사게 되었고, 이후 전쟁 중 오디세우스에 의해 적과 내통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는데, 고르기아스는 이것을 소재로 삼아 팔라메데스가 하였을 법한 변론문을 창작하였던 것이다. 플라톤의 **‘변론’**이 팔라메데스와 얼마나 내용상 유사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와 분석이 있었는데[59], Reeve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론’	팔라메데스의 변론	변론기법
31c2	15	검소한 정도의 재산을 가진 것이 곧 자기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기
27a1-7	25-26	자기에 제기된 혐의는 거짓일 뿐 아니라 주장 자체로서 모순된다고 말하기
25d8-26a6	13	무슨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인가? (동기)
34b6-35d8	33	동정을 구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서 변론하겠다고 말하기
30c2-31a7	30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을 위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 및 재판관을 위해 변론하고 있다고 말하기
28b3-9	35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말하기

56) 이러한 말로 오히려 아테네인들의 시기와 격분을 사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말이 변론에서 적절한지는 의문이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죽기를 선택하였다면, 사형선고를 받기 위해 일부러 이같은 말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57) “신한테서 실천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33c).

58) “내가 본의 아니게 그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면, 법은 그런 잘못들로 이리로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붙잡고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오.”(26a), “법은 처벌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리로 이끌고 오는 것이지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오.”(26a).

59) 대표적으로 C. D. C Reeve, *Socrates in the Apology - an essay on the plato's apology of socrates,*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9, 7p, J. A. Coulter, “The Relation of the *Apology of Socrates* to Gorgias' *Defence of Palamedes* and Plato's Critique of Gorgianic Rhetoric”, Keith V. Erickson(ed.), *Plato: True And Sophistic Rhetoric*, Amsterdam, 1979.

‘변론’	팔라메데스의 변론	변론기법
38c5-8	34-35	노년에 죽음은 곧 닥친 일인데, 배심원들은 일부러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
32a4-5	34	(진실된) 말과 (거짓된) 행동을 대조시키기
38c1-4	36	무고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면 배심원들 자신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범죄자가 되었다는 비난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38a5-6	21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삶도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

Reeve가 지적한 것 외에도 두 작품 사이에 유사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기소인은 근거 없이 기소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만약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매우 나쁜 사람으로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변론’** 24b, 팔라메데스의 변론 3, 24), 자신의 과거의 행적에 있어 비난받을만한 비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변론’** 32a-33a, 팔라메데스의 변론 31, 32), 배심원들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탄원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 말하여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하기(**‘변론’** 34c, 팔라메데스의 변론 33) 등이 있다.

한편 **‘변론’** 자체에도 신화 속 인물인 팔라메데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41a8-b5), 소크라테스가 저승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 즉 올바르지 못한 판결로 죽은 사람들, 그 중에서 팔라메데스를 만나게 된다면 즐거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완전히 동일한 표현을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의 변론’(26)[6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실제 소크라테스가 한 변론에서 이 부분의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이유가 된다.

(4) 안티폰의 소거법

소거법이란 개연성에 기초한 주장에 대해 주장된 사실 자체를 증명 또는 논박하는

60) “저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서 죽음을 당하였던 팔라메데스의 경우를 보면, 저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팔라메데스를 불의하게 살해한 오딧세우스보다도 팔라메데스가 지금까지도 더 아름답게 칭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 Martinez (tr.), Xenophon’s *Apology of Socrates*, Thomas C. Brickhouse and Nicholas D. Smith (ed.), *The Trial and Execution of Socrates, Sources and Controvers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86쪽.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실로써 가능성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사실의 범위를 좁혀가는 기술을 말한다.[61]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가정할 때 그것은 고의로 한 것인가 과실로 한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면, 만약 고의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소크라테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앙갚음으로) 해코지를 받았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받았는가?’를 조사하여 ‘아니다.’는 답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고의로 했을 리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들 수 있다. **‘변론’**에서 예를 찾아보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해 ‘약한 주장을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기소인측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데, 자신은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고르기아스, 프로디코스, 히피아스, 에우에노스는 그런 방법을 안다고 말하였고 또 돈을 받고 실제로 가르쳤다. 만약 소크라테스 자신도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들처럼 돈을 받고 가르쳤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가르쳤는가? 소크라테스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악한 주장을 강하게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한다.’(19c-d, 20c)는 순서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5)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략삼단논법

생략삼단논법이란 삼단논법식 논증에서 대전제를 생략하는 것으로, 대전제를 생략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논증에서 대전제를 생략한 결과 논증이 간략해지게 되고, 또 듣는 사람은 사고 속에서 생략된 대전제를 찾아 논증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지적 즐거움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 유머러스한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생략삼단논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발견한 것이

---

61) 안티폰 작품 중에서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변론이 있다. “〈평범한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것 같지(*eikos*)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에 위험이 되는 곳까지 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범행을 통해서 손에 분명히 쥘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견된 피해자는 여전히 망토를 입고 있었습니다. 살인자는 술에 취한 사람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범인을 알아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누군가와 다투다가 살해당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외진 장소에서 한밤중에 싸우고 있었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 다른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죽였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경우라면) 그의 노예도 함께 죽였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능성을 모두 제거할 경우, 사망에 관련된 주변상황은 이 사건이 면밀하게 계획된 범행임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Ant. 2.1.4-5).

아니라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던 것을 정리한 것이므로 형사변론에서도 그러한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24a). 아니토스 등이 소크라테스를 미워하는 이유는 소크라테스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생략삼단논법이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의 치밀한 논증이라는 것을 알아채기도, 또 이런 주장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논증의 구조는 간단히 분석하면 'B가 A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A가 B에 대해 화를 낸다. 왜냐하면 B가 한 말이 참/거짓이기 때문이다.'인데, **'변론'**에서는 "(생략된 대전제 - 아니토스 등이 무지하지 않으면, 만약 소크라테스가 아니토스 등이 무지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무지가 드러났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화를 내지도 않을 것이다. 반면 아니토스 등이 무지하다는 것이 사실이면, 아니토스 등은 소크라테스의 말에 의해 자신의 무지가 드러났다고 여길 것이므로 화를 낼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아니토스 등이 아는 체는 하고 있지만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아니토스 등이 화를 낸다. 그렇다면 아니토스 등은 무지하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진실이다."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괄호 속 부분이 생략되었으므로 생략삼단논법이 쓰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4. 기타 형사변론(수사학) 이론에서 지적되는 사항들과 '변론'의 대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변론에서 설득력의 원천은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에토스는 화자 자신의 평판에 관한 것으로, 화자는 청중이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선입견이나 편견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서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청중의 호감을 얻고 자신에 대한 나쁜 평판을 제거하는 말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말은 배심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말해야 하는 것이므로 변론에서는 서두에서 해야 할 말이 된다. **'변론'**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들 사이에 자신에 대한 악명(평판) 내지 증오심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명)하고, 그 다음에 기소된 사항에 대해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24b를 기준으로 앞부분은 해명, 뒷부분은 기소내용에 대한 검토).

5. 여론(餘論) – 소크라테스 재판과 죽음의 진실

소크라테스가 재판받고 처형된 것은 역사적 사실로 전해 온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변론하였을까 하는 것은 대략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소크라테스 변론의 특징으로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떠벌리고 큰소리쳤다’(Megalegoria, 보통의 피고인과 다르게 배심원들 앞에서 기고만장하여 큰소리 친 것)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왜 통상의 피고인들이 선보이는 방식을 변론하지 않고 배심원들을 크게 자극하는 그런 식의 변론을 하였을까 하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 쟁점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크세노폰이 이해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에는 재판 전에 변론을 준비할 생각이었는데 여러 번의 계시를 통해 신이 변론준비를 반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신이 노년의 자신에게 노년의 고통을 면해주려고 죽음을 좋은 선물로 주고자 한 것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재판을 통해 죽기로 작정했으며, 통상의 피고인으로서는 어울리지 않게 배심원들 앞에서 떠벌리는 변론을 하여 배심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62]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실패한 것이 아니며, 왜 소크라테스가 통상의 피고인과 다른 태도로 배심원의 화를 촉발시키는 변론을 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무죄석방을 위해 당대에 알려진 최고의 변론술들을 모두 최선을 다해 발휘하는 모습으로 변론을 하였던 것처럼 보여주면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위해 순교하는 자세로 재판과 죽음에 임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렇듯 무엇이 실제의 변론이었는가 하는 점 못지않게 왜 변론에 실패하였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도 큰 셈인데, 고전학계에서는 플라톤의 **‘변론’**이 역사적

---

62) 크세노폰에 의하면,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통해 죽음을 선택한 것은 신의 사랑을 받은 소크라테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지 죄 없이 사형선고를 받은 자의 억울한 죽음도,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비참한 죽음도 결코 아니었다. 크세노폰은 당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재판 중에 보인 태도(‘Megalegoria’)를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기 이름의 작품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저술한 동기를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A. Martinez (tr.), Xenophon’s *Apology of Socrates*, Thomas C. Brickhouse and Nicholas D. Smith (ed.), *The Trial and Execution of Socrates, Sources and Controvers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82-87쪽. 크세노폰의 ‘Megalegoria’에 대한 심층의 연구로는 Louis-Andre Dorion, “The Daimonion and the Megalegoria of Socrates in Xenophon’s Apology”, *Apeiron*, Vol. 38 No. 2, 2005, Leo Straus, “Apology of Socrates to the Jury”, Allan Bloom (ed.), *Leo Strauss - Xenophon’s Socrates*, St. Augustine’s Press, 1998 참조. **‘변론’**에서도 소크라테스가 변론 중 배심원들에 소동을 일으키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하고 있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서 ‘Megalegoria’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실재에 더 충실하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변론'**을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 작품으로 분류하여, 이 작품이 플라톤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형성해서 글쓰기한 후기 대화편 작품들과 달리 소크라테스로부터 받은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관해 크세노폰이 남긴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의 소크라테스에 대한 철학적 이해수준을 문제삼으면서 폄하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평소 수사학에 대해 보인 태도를 감안하면 플라톤의 **'변론'**에 그려진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소피스트들의 장기인 변론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방식으로 변론하였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철학적 이해수준이 낮다고 비난받는 크세노폰은 오히려 있었던 그대로 꾸밈없이 보고하는 수준에서 작품을 남겼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의 진실에 있어서는 크세노폰의 설명이 훨씬 더 역사적 실제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러셀은 예전에는 이런 이해가 널리 보편적이었다고 지적한다). 또 플라톤의 **'변론'**이 형사변론술의 대가가 선보인 것으로 봐도 무방한 정도의 작품이라면, 왜 변론을 한 소송당사자, 즉 소크라테스는 재판결과에 있어 패소하였는가 하는 점이 설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점에 있어 크세노폰의 설명이 더욱 설득력이 있기도 하다.

고전학계에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뛰어난 제자라는 점, 다른 대화편들의 경우에는 플라톤이 대화 중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술한 부분이 거의 없음에도 **'변론'**에서는 그 자신이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참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변론'**을 역사적 변론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한 대로이지만, 그럼에도 **'변론'**을 역사적 변론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필자 나름대로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크라테스가 법정변론술로 대표되는 수사학에 대해 보인 태도라든지, 재판을 앞두고 보인 태도 때문이다.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가 재판에 앞서 왜 변론준비를 전혀 하지 않느냐는 헤르모게네스의 질문에 소크라테스 자신이 재판준비를 하는 것을 다이몬(daimon)이 말렸으며 다이몬이 그에게 좋은 것(죽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63]. 그런데 **'변론'**에는 소크라테스가 평소에 반대한,

---

63) E. C. Marchant (tr.), Xenophon's *Memoralbilia*, Harvard University Press, 1923, IV 8장, A. Martinez (tr.), Xenophon's *Apology of Socrates*, Thomas C. Brickhouse and Nicholas D. Smith (ed.), *The Trial and Execution of Socrates, Sources and Controvers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82-87쪽.

소피스트들의 전형적인 수사학 기술들(변론기술들)이 그대로 활용되어 있다. 소피스트들이 보여준 변론기술들은 매우 다양한데,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이러한 변론술들이 실제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소피스트 수사학에 대한 평소의 그의 언행과 크게 모순된다.[64]

둘째 소크라테스의 방법으로 특유한 것이 문답술이고, 그중 엘렌코스(논박술)이 특징이라면, 이것은 법정변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조상 엘렌코스는 1:1의 대화에 적당하지 재판관 앞에서 개연적 진실을 두고 상대방과 경쟁해야 하는 재판에서는 부적당하다. 재판관이나 배심원을 상대로 문답을 전개해서 이들의 진술을 유도한다거나 생각을 논박하겠다는 것은 법정변론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다. 배심원 앞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변론해야 하고 배심원이나 재판관에 대화를 제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장기는 애당초 법정변론에는 부적당하다.

셋째 크세노폰이 전하는 소크라테스 변론의 한 가지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실제 변론을 한마디로 특징짓자면 그것은 법정변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소리치기’와 ‘떠벌리기’였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의 장기와 신으로부터 받은 복을 자랑하고 떠벌렸으며, 이것이 배심원들의 질투를 초래하였고, 배심원들이 사형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소크라테스는 통상의 피고인들과 달리 사형선고를 바라고 기대했으며, 그것이 자신을 위해 신이 준비한 선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크세노폰이 전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플라톤이 전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 배심원들을 설득하려 애쓰는 소크라테스와는 충격적일 정도로 정반대이다. 소크라테스 당시 전해지는 수사학적 기술들, 즉 법정변론술을 정리해 보면, 대표적인 소피스트들의 기술들이 **‘변론’**에서 발견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수사학이 말을 꾸미는 기술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진실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감안하면 실제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사후에 많은 변론문들이 작성되었듯이, 플라톤의 **‘변론’** 역시 플라톤의 창작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또 상대방과 말로 경쟁하여 배심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을 재판에서의 성공이라 한다면, 플라톤의 **‘변론’**이 보여준 소크라테스는 변론에서 크게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변론에서의

64) 이에 대해서는 평소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의 기술에 무지하였던 것이 아니라 완벽할 정도로 마스터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술들을 철학을 위해 일종의 패러디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있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성공에 큰 의의를 두었을 것이라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애썼을 것이라 가정하는 것 자체가 소크라테스의 모습과 모순되는 것 아닌가? 크세노폰이 실제의 변론현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기록한 반면, 플라톤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간편한 설명일지 모르나 또한 매우 순진한 것이다.[65]

IV. 결 론

이상에서 플라톤의 **'변론'**에 사용된 법정변론의 기술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법정에서 재판장은 소송당사자나 검사 및 변호인 등에게 구두변론의 기회는 제공할 수 있어도 법관이 직접 사건에 대해 변론을 할 수는 없다.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법원 중심의 사법개혁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작 구두변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법관이 아닌 소송당사자의 임무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사람들은 기성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잘할 수 있는 것이 구두변론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구두변론이라는 것이 영미문화권에 속한 법조인이 아니라면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변론활동이라고 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다소의 이론과 교육 및 훈련이 없으면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구두변론인 것이다.

구두변론의 기술은 역사가 매우 깊다. 서구사회에서 어쩌면 역사상 최초로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교육된 기술이 곧 법정에서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건을 구두로 변론하는 것에 관계된 기술들이고, 또 무척 다행스럽게도 그 기술들을 후세에 전해주는 상당한 분량의 사료들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하나인 '소크라테스의 변론'인데,[66] 이제껏 작품 본연의 성격인

---

65) 이런 이유로 소크라테스 문제에 있어 플라톤의 초기작품에 지나치게 신빙성을 두는 것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전거들도 대조하여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고 또 플라톤의 창작일 가능성(물론 완전한 허구는 아니고 실제의 사실들을 소재로 하여 그럴듯하게 재구성한 것으로)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가들이 내린 결론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대가들조차도 항시 열린 문제로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J. Burnet, *Greek Philosophy - Thales to Plato*, Macmillan and co., limited St. Martin's street, London, 1950, 126-150쪽 참조.

형사변론문으로서보다는 ‘삶으로서 철학을 실천하였던 역사 속의 고매한 철학자를 그린 작품’으로 읽혀져 왔다. 부족하지만 이 글을 통해 **‘변론’**의 성격을 재발견할 수 있고 그리하여 **‘변론’**을 비롯한 고전독해의 즐거움을 되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변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당대의 다른 변론문들이 함께 읽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관련 변론문들도 하루빨리 우리말로 소개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12. 7. 25	**심사완료일** 2012. 8. 28	**게재확정일** 2012. 8. 31

66) **‘변론’**에서 고전수사학의 기술들을 찾아 소개한다 해도 이것이 구두변론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고전 수사학의 작품들에 사용된 기술들을 그대로 현대의 법정에서 재연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원칙들을 재발견하고 현대의 사회상황과 문화에 맞추어 실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들을 익혀야 한다는 취지이다. 앞으로 고전수사학에 대한 연구도 실제 실무에서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현대의 다양한 경험적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플라톤(박종현 역), **플라톤의 네 대화편 -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서광사, 2003.

도리앙(김유석 역), **소크라테스**, 이학사, 2009.

게르트 외딩(박성철 역), **고전수사학**, 동문선, 2003.

고트프리드 마틴(이강석 역), **대화의 철학 소크라테스**, 한길사, 2004.

하재홍, "고전수사학과 법적 논증술", **경기법학논총**, 제10호, 2010.

Brickhouse, T. C. and Smith, N. D., *Socrates on the Tri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Brickhouse, T. C. and Smith, N. D.(ed.), *The Trial and Execution of Socrates - Source and Controvers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Brickhouse, T. C. and Smith, N. D., *Plato and the Trial of socrates(Routledge Philosophy GuideBook)*, Routledge, 2004.

Burnet, J., *Greek Philosophy - Thales to Plato*, Macmillan and co., limited St. Martin's street, London, 1950.

Burnet, J.(edited with notes), *Plato's Euthyphro, Apology of Socrates, Crito*, Clarendon Paperbacks, 1924(reprint 2002).

Frost, M., *Introduction of Classical Legal Rhetoric: A Lost Heritage*, Ashgate, 2005.

Gagarin, M., *Antiphon and Andocides - The Oratory of Classical Greece, vol. 1*, (Trans. M. Gagarin, D. MacDowell),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1998.

Gagarin, M.(ed.), *Antiphon The Speech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Gagarin, M. and Woodruff P.(ed.), *Early Greek Political Thought from Hormer to the Sophi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Leibowittz, D., *The Ironic Defence of Socrates Plato's Apol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Macdowell, M.(ed., tr.), *Gorgias - Encomium of Helen*, Bristol Classical Press, 1982.

Maidment, K. J.(tr.), *Minor Attic Orators Ⅰ(Antiphon · Andocid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41.

Reeve, C. D. C., *Socrates in the Apology - an essay on the plato's apology of socrates,*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9.

<Abstract>

Plato’s ‘Apology of Socrates’ and Defence Skills

Ha, Jai-hong*

Since July. 1, 2007.,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has a provision that pleadings in the courtroom should be made oral(Article 275-3). However many korean lawyers are not familiar with oral argumentation yet and show reluctance to execute a telling delivery in the courtroom.

Oral argumentation does not mean just speaking a few digested-papers aloud. Skills in oral argumentation in the courtroom have been developed in a long time and have a good traditions and theories since Corax and Tisias in Sicily, and without classical canons of rhetoric as a framework for legal reasoning and writing, oral argumentation might be impossible.

‘Apology of Socrates’, a well-known work of Plato, adapted various oral argumentation skills, which had been introduced, tested, certified and systemized by many sophists, like Corax, Antiphon, Gorgias, etc. Thus ‘Apology of Socrates’ is not only a philosophical work, but also a kind of valuable rhetorical work, and this is one of ironies of Socrates. This article intends to reveal those skills to korean readers and lawyers.

Until now scholars has failed to find out all rhetorical defence skills throughout the work, they just pointed out several well-known old tactics in introduction part of first speech of ‘Apology of Socrates’. This article aims at two main targets. First, to review and rediscover full sophistic skills of oral argumentation adapted by Plato in entire first speech of ‘Apology of Socrates’. Second, to give detailed explanations to the characters of skills by showing resemblances and differences between originally introduced skills by sophists and adapted one by Plato.

Keyword: art of argumentation, sophist, rhetoric, trial and death of Socrates, Plato, Xenophon

---

* Assistant Professor, Attorney at Law, Kyonggi University, College of Laws.